



협동조합

도진마치(唐人町) 플라자 감당관(甘棠館)



협동조합 도진마치(唐人町) 플라자 감당관(甘棠館)이란

‘도진마치(唐人町) 서부지구 재개발 빌딩’이 건설된 이곳은 이전에 가메이 난메이(亀井南冥)가 관장을 맡은 서학문소(西學問所)인 감당관(甘棠館)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 청운의 꿈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감당관(甘棠館) 초대 관장 가메이난메이(亀井南冥)

1784년, 후쿠오카 번(福岡藩) 7대 영주인 구로다하루유키(黒田治之)가 동부 (수유관 / 修猷館) 과 서부 (감당관 / 甘棠館), 두개의 학문소를 동시에 개교해 그 중에 하나인 서학문소(西學問所)가 감당관(甘棠館)이라 불리고 도진마치(唐人町)에 있는 난메이(南冥)의 저택에 인접한 이곳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시정의 유학자인 가메이난메이(亀井南冥)는 관장으로써 소라이(徂徠) 학파 《학(學)은 작은 도덕(道德)을 버려도 큰 경세제민(經世濟民)에게 배워야 한다》의 실학(實學)을 널리 교수했습니다.

난메이(南冥)가 감당관(甘棠館) 관장이 된 해, 시카노시마(志賀島)에서 발견된 금인(金印)에 대해 번(藩)내에서는 가짜설, 주조 으깨기론 등이 나왔지만, 그것들에 반박해 ‘금인변(金印弁)’으로 금인(金印)을 보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가메이난메이(亀井南冥)] (1743 ~ 1814)

유학자이자 의사. 난메이(南冥)는 호(號). 사와라군(早良郡) 메이노하마 무라(姪浜村)에서 출생.

14살 때, 소라이(徂徠) 학파의 선승 대조(禪僧大潮)에게 한시한문(漢詩漢文)을 배움.

20 살 때, 상방유학(上方遊學), 나가토미도쿠쇼안(永富独嘯庵)에게 의학을 배움.

1764년, 도진마치(唐人町)에서 난메이당(南冥堂)을 열어 유학을 강의했다.



가메이난메이(亀井南冥)



감당관(甘棠館)의 결말



감당관(甘棠館)이 개교한 해, 시카노시마에서 발견된 금인(金印)에 대해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한 자가 난메이(南冥)였습니다. 그것은 고학파(古学派)의 교양이 기초가 된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난메이(南冥)는 현지에서 "유협(儒俠)"라 불릴 정도로 실천적인 임협 기질을 가지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맞섰지만 그것이 오히려 당국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다자이후 정청터(太宰府政庁跡)와 기타 유적에 기념비를 세우려 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인해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서학문소(西学問所)는 자유로운 기풍을 모토로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1790년 "관정(寬政) 이학(異学)의 금지"라는 명령의 여파가 파급되었는지 1792년, 난메이(南冥)는 담당관(甘棠館) 관장의 자리를 쫓겨, 7년 후에는 담당관(甘棠館)가 소실되자 폐교되었습니다. 동시에 주자학(朱子学)파의 번교(藩校)인 동학문소(東学問所) 수유관(修猷館)과 합병되었습니다.



감당(甘棠)은 과수의 이름

모과, 팔배의 별명.
장미과의 낙엽 교목.

열매는 팔처럼 생겼고
빨간색 또는 노란색으로 익어 새콤달콤하다.
[감당(甘棠) 나무의 이름]
일본에서는 “가라나시”, ‘아카링고’의 옛이름.
모과의 별명.

"강담(甘棠) 나무"는 카랜드파크 건물의 서쪽에 위치하는 ‘도진 베이커리 포엠 본점’ 옆에 심어진 두 그루로 매년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